
3강

삶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까닭, 지장본풀이

삶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까닭, 지장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1.

<지장본풀이>는 곳에서 나까시리놀림이라고 하는 제차에 이어 노래한다. 마른 떡을 먹어 목이 마르니 <지장본풀이>로 풀어 올린다고 한다. 심방이 목이 말라 그렇다고 하기도 하나 이는 적절치 않은 설명이다.¹⁾ 달리 시루떡을 받아먹은 신전이 목이 마르니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도 역시 그다지 시원한 설명은 아니다.

<지장본풀이>에 대해서 속시원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주도 무속 전반을 통해서 그 정체를 어느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지장본풀이>는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아울러 주위 모든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본풀이는 의례의 규범으로 기능한다. 일반신본풀이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일반신본풀이는 본풀이 자체로만 존재하는 사례가 드물다. 그렇다면 지장본풀이는 어떠한 의례와 관련이 있는지 찾을 필요가 있다. 지장본풀이도 어떤 의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이 점은 지장본풀이도 예외가 아니겠다. 지장본풀이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의 서두에서 ‘지장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본풀이 자체에서 어떻게 언급하는 사례가 없다. 그렇다면 ‘지장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해명하는 일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서서 정리하면 <지장본풀이>는 ‘스룩본풀이’ 혹은 ‘새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전상본풀이’라고 할 수 있는 <삼공본풀이>와 견주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 “서말살 왕구벽 대독판 세미금시리 내놀렸더니 지관(祭官)은 마른 떡 먹언 애손 가슴이 7웁7웁흔 듯흡네다. 조소지(燒酒) 청감주(淸甘酒) 주침치명 지장만보살로 신평어 올리자.” 현용준, 『제주도무속 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p.288

새의 본초를 서수왕 뜰에서 찾는 새드림, 새 몸에 났다고 하는 <지장본풀이>의 결말을 아울러 해명해야 한다.

<지장본풀이>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연한다. 심방은 서서 노래를 하고, 소미 둘이 북과 장구로 반주하며 복창한다. 서울곳으로 치면 만세받이 형식이다.

2.

<지장본풀이>는 사설이 단순하므로 그대로 옮겨 보자.

지장아 지장아 / 지장의 본이여,
남산국 본이여 / 여산국 본이여
남산광 여산은 / 애기가 엇이난 / 무이스 흐드라.
동개남 삼동절 / 절수룩 드리난
생불고장 느리고 / 예즈생불이 솟아나고
흔슬이 나는 해예 / 어멍 독막립에 온조새 흐는고,
두슬이 나는 해예 / 아방 독막립에 온조새 흐는고,
시슬이 나는 해예 / 할망 독막립에 온조새 흐는고,
늑슬이 나는 해예 / 할으방 독막립에 온조새 흐는고,
다숫슬 나는 해예 / 설룬 어멍 똑 죽어가는고,
으숫슬 나는 해예 / 설룬 아방 똑 죽어가는고,
일곱슬 나는 해예 / 설룬 할으방 설룬 할망이 / 똑 죽어가는고,
외삼춘 댁으로 비방을 나는고,
개떡단 줍시에 / 중이 떡단 줍시에 / 술밥을 주더라.
죽으랭 삼두전 거리에 / 늘여사부는고.
옥황이서 부영생이 느린다. / 흔늘개랑 깔리라 / 흔늘개랑 덕으라
흔슬 두슬 열다숫 시오세 / 나가가난.
착흐댄 흔 소문이 / 동서로 나는구나.
서수왕 서펜이 / 문수의 댁이서 / 문운장 오든고.
팔제스주 글리난 / 좋아서 가는고. / 씨집을 가는고.
예릴곱 나는 해예 / 설루운 씨어멍 똑 죽어가는고.
예레듭 나는 해예 / 설루운 씨아방 똑 죽어가는고,
열아옴 나는 해예 / 씨할망 씨할르방 / 똑 죽어가는고.
긱쑤물 나는 해예 / 설루운 낭군님 / 똑 죽어가는고.
나년의 팔제여 / 나년의 스주여, / 어딜로 가리요.
씨누이 방으로 / 비방을 나는고,
죽일 말 흐는고 / 구울 말 흐는고,
배룩이 닳되여, / 니가 닳되여,

어딜로 가리요. / 삼두전 거리로 / 나아사 가시고
 동으로는 대스가 오시고. / 서으로는 심방이 오시고.
 나 팔제 곱립서, / 나 스주 곱립서,
 원청강의 팔제 스주 / 곱려사 가시고.
 초본은 좋아도 / 중본은 곱썩다.
 중본은 곱어도 / 말본은 좋썩다.
 갱맹지 물맹지 / 일천동 흐십서,
 시어멍 씨아방 / 원어멍 원아방
 설루운 낭군님 / 초새납 흐십서.
 이새납 흐십서. / 삼새납 흐십서.
 천정판에 연ㄴ르 붙입서.
 누애씨 청흔다. / 누애씨 탕온다.
 털어서 가시고, / 애기즘 재우시고,
 두불즘 재우시고, / 시불즘 재우시고,
 너불즘 재우시고, / 흔밤을 먹시고
 올으사 가시고 / 고치를 짓시고,
 탕근 가시고 / 썰조상 가시고
 감아서 가시고 / 놀아서 가시고
 매여서 가시고 / 차서 가시고.
 흔새 두새 열두새여, / 보름새여,
 갱맹지도 일천동이, / 물맹지도 일천동이,
 씨어멍 씨아방 / 원어멍 원아방
 설루운 낭군님. / 초새납 흐는고,
 이새납 흐는고, / 삼새납 흐는고,
 천장판에 연ㄴ르 붙이난 / 새몸에 나는고
 지장의 애기는 / 좋은 일 흐였저.
 새몸에 나더라. / 천왕새 드리자.
 지왕새 드리자. / 인왕새 드리자.
 열두시만국 승험을 주는 새 / 조왜를 주는 새,
 이 간이 정중에 / 승험조왜 주는 새랑
 날날이 드리자 / 서수왕 딸애기
 문수의 집이 / 씨집을 못가난
 문ㄴ진 방안에 / 문결영 앓아서
 좃아서 죽는고 / 즈청비 흐고 새움을 흐는고
 눈으로 나는 건 / 공방새 나는고.
 코으로 나는 건 / 코주리새여
 입으로 나는 건 / 악심새여
 열두시만국 승험을 주는 새랑 / 날날이 드리자.
 장궁장새 주어혈썩.

-남제주군 중문면 강정리 남무 57세 박남하님D

3.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장아기씨는 불공을 하여 어렵게 출생한다. 자라는 동안 가족이 차례로 모두 죽는다. 외가로 가서 의탁한다. 외삼촌의 구박을 받다가 집을 나간다.¹⁾ 하늘 봉새의 보살핌을 받아 성장한다. 착하다는 소문이 나서 시집을 간다. 잠시 안정을 찾아가 하였으나 역시 가족이 차례로 모두 죽는다.²⁾ 시집에서 나와 시누이 집으로 결방살이 간다. 시누이의 박대에 못이겨 집을 나선다. 중의 말에 따라 곳을 하기로 한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한다. 스스로 심방이 되어 시왕맞이곳을 한다. 할 일을 마친 뒤에는 죽어서 새로 환생한다. 사람들에게 온갖 흉험을 주어서 얻어먹는다.

지장아기씨가 서사의 주인공이면서 신이 된다. 이야기 속에서 곳을 준비하고 곳을 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신으로 좌정한다.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서사가 단순하다는 점이다.³⁾ 인물은 여럿 등장하지만 개성적인 존재는 없다. 인물간의 갈등 양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지장아기씨와 세계의 갈등이 유일하다. 세계에서 다른 인물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드러난 환경조차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야기 자체가 흥밋거리를 마련할 만한 요소가 없다. 의례적 의미가 서사적 흥미를 압도하는 사례이다. 의례적으로도 혼란상이 많다. 방향성이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지장본풀이>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지 않는다. 비극이 거듭될 뿐이다. 그것도 비슷한 양상으로 거듭된다. 어디에서도 흥미 요소를 찾기 어렵다. 본가, 외가, 시가 사람 모두 차례로 죽는다. 본가에서 태어나서 네 살까지, 외가에서 잠시, 시가에서 잠깐 편안한 시절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주위 사람이 차례로 죽는 일이 벌어진다. 지장아기가 낳은 자식마저 죽는다고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전혀 모른다.

혼인하고 아이 낳는 대목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이 죽는

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pp.163~165.

1) 외가 가족들도 차례로 모두 죽는다고도 한다.

2) 아이를 낳았으나 그 아이마저 죽는다고도 한다.

3) 이는 <지장본풀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고, 연구가 심화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이 생긴다. 이유도 모르는 일이 속절없이 벌어진다. 다양한 고난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위 사람이 죽는 일이 거듭된다. 여기에 지장아기씨의 잘못이 개입되는 일도 없다. 시누이 집에서 핍박 받는 일이 유달리 설정되었을 뿐이다. 시누이를 제외하고는 개성이 부여된 인물이 없다. 남편조차 개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본풀이에서 혼인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지장본풀이>에서는 이마저도 모두 죽음으로 연결하여 버린다. 이는 곧 인물간의 갈등이 문제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누이는 지장 아기씨를 핍박하는 존재로 설정된 유일한 인물이다. 그러나 지장아기씨를 핍박한 악인이지만 그에 대한 징벌적인 결과는 따르지 않는다. 선악의 문제나 갈등 양상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지장아기씨 주위 사람이 모두 죽지만 시누이는 예외이다. 관련 후일담조차 없다. 지장아기씨를 멀리한 덕에 오히려 무사하였다고 풀이할 여지도 있다. 이 대목은 시집살이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집살이 관련 장애로 보기도 어렵다.

<지장본풀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위에 정리한 바와 같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할 뿐이다. 본풀이 가운데서도 가장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여전히 전승 되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

<지장본풀이>는 새남굿, 새드림 등 새와 관련된 의례의 규범을 담고 있다. 관련 문맥이 제시되지 않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좋지 않은 일이 거듭되면 새남굿을 해야 한다. 작은 일은 새가 들어서 그러한 것이니 그때그때 처리해야 한다. <지장본풀이>는 ‘거듭’ 되는 좋지 않은 일을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이다. 나쁜 일은 그때마다 풀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지나치면 결국 큰일을 당하고 만다. 새는 한을 품고 죽은 조상의 영혼들이 관련 되어 있는 존재이다.

<지장본풀이> 끝에는 새드림 말명을 붙이고 비념 사설로 마무리한다.¹⁾ 지장 아기씨가 새로 환생한다고 해놓고 새드림 말명을 붙이니 둘의 연관성이 긴밀하다. 새는 날짐승이지만 사기(邪氣)에 해당하는 사(邪)이

1) 새드림은 굿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부정(不淨)을 정화하는 순서이다. 온갖 새를 쫓는다는 사설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온몸을 칼로 찌르는 모양을 하기도 한다.

기도 하다. 소리가 비슷한 것을 빌미로 하여 새[鳥]와 사(邪)를 필요에 따라 바꾸어 가며 쓴다. 이때의 사(邪)는 사람들 주위를 떠돌아 다니며 불운(不運)을 일으켜서 얻어먹는 존재이다.

<지장본풀이>는 사(邪)의 근원을 풀이하는 이야기이다. 지장아기씨 주위의 사람이 차례로 죽은 까닭은 이 사(邪)의 탓이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굿을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지장본풀이>는 의례를 해야 하는 사정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새드림의 규범을 담은 본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장본풀이>는 <삼공본풀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국면으로 전개된다. 지장아기와 가문장아기의 존재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점에서는 상통한다. 지장아기가 존재하는 곳에 불행이 함께 하고, 가문장아기가 존재하는 곳에 행운이 함께 한다. 이로 보아 <지장본풀이>는 ‘스룩본풀이’라고 할 수 있고, <삼공본풀이>는 ‘전상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스룩은 불행만이 존재하나 전상은 행운과 불행이 공존한다.

새의 본초(本初)로는 지장아기씨, <세경본풀이> 서수왕 딸아기가 거론된다. 새드림은 본풀이가 아니다. 새드림의 근원이 되는 본풀이는 따로 존재하는 셈이다. <세경본풀이>는 세경신의 본초일 뿐이다. 따라서 새의 본초는 <지장본풀이>가 유일하다. <세경본풀이>는 국부적인 관련성 탓에 덧붙여진 것일 뿐이다. 흔히 새는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의 화생으로 설정되지만, 지장아기씨는 그러한 새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산 뒤에 새를 풀어주고 자신이 새로 화생한 사례이다.

4.

<지장본풀이>는 상위신에 대한 의례를 마치고 하위신들을 위한 의례를 행하는 가운데 푼다. 앞서 나까시리놀림을 하고 시루떡을 신전에 바친다. 이는 사자와 그 뒤를 따르는 하위신을 위한 것이다. <지장본풀이> 다음에는 군병질을 친다. 군병질은 전쟁이나 큰 사고로 죽어 자손들로부터 온전하게 제향을 받지 못하는 신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에 앞서 <지장본풀이>를 풀어내니,

<지장본풀이>에서 다루는 존재는 사자의 뒤를 따르는 하위신보다는 하위의 신이면서 군병질보다는 상위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장아기씨의 위상이 어느정도 드러난다.

본풀이 사설에 <세경본풀이> 내용이 삽입되기도 한다. 여러 모로 보아 본풀이가 온전한 상태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례적으로도 그 의미가 분명치 않다. 본풀이 말미에서 “누가 일파 지장인고(누가 이룬 지장이냐)?” 고 하면서 열명(列名)을 하는데, 이 대목을 근거로 하면 사람들이 굿을 하게 된 내력을 풀이하는 본풀이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¹⁾ 지장아기씨가 한 굿을 전새남이라고 한 것도 흘려 넘겨서는 곤란하다. 전새남은 시왕맞이와 같은 말이니 별 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새남’에 대한 풀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장본풀이>는 ‘새’가 ‘난’ 내력을 풀이하고 있다. 다시 ‘지장’에 주목하면 지장은 지장(支障)이다. 누가 정성을 들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장을 일으켜서’ 풀어내기 위하여 굿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지장은 다시 지장(志場)이기도 하다. 이때 ‘지’는 정성\을 의미한다. 정성을 하는 굿청을 마련한 내력을 풀이하는 셈이다. 새는 지장으로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장본풀이>는 빌미만 있으면 가져다 쓰는 제주 무속 사회의 전통이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빌미가 되는 것을 있는 대로 활용하다 보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1) 열명(列名)은 정성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이른다.